

영어 만점자 4.8%, 국어B형은 4.15%

올해도 '쉬운 수능' 이어질 듯

6월 모의평가 분석해 보니

만점자 작년 수능보다 많아
변별력 떨어져 실수 줄어야

오는 11월12일 시행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작년처럼 쉽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공개한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수능을 쉽게 출제하겠다는 기조가 그대로 엿보인다.

평가원의 수능 모의평가는 수능의 출제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자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번 시험은 작년 수능 출제 오류 사태에 따라 교육당국이 올해 3월 수능 개선 방안을 내놓고 나서 첫 모의평가다.

이번 모의평가의 특징은 영어와 국어B형에서 만점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두 영역에서는 만점을 받아야 상위 4%를 구분하는 1등급이 될 정도로 쉬웠다.

영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인 128점을 받은 만점자가 2만7213명으로 전체 응시인원의 4.83%나 된다. 수능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5학년도 수능의 영어 만점자 비율 3.37%보다 높다.

평가원은 EBS 영어 교재의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일부 문항에서 변경된 문제를 출제했지만 수험생들의 제갈 난도는 높지 않았던 셈이다. 여기에는 2018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 도입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 국어·수학·영어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

영역	2015학년도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6월 모의평가	수능
국어	A형	128	124	132	126
	B형	133	122	139	124
수학	A형	136	146	131	137
	B형	132	137	125	131
영어	126	128	132	128	

인문계 수험생이 많이 보는 국어B형의 만점자 역시 1만2537명으로 응시자의 4.15%나 된다. 작년 수능 만점자 280명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평가원이 지난해 국어 B형이 어려웠다 는 지적을 받고서 난이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학은 만점자가 A형이 1.55%, B형이 0.98%로 국어, 영어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다.

그러나 이번 모의평가로 수능에서 영역별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실제 수능의 영역별 난이도가 6월, 9월 모의평가와 달라졌던 적이 많다. 지난해 국어의 경우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는 평이했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난도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이번 모의평가는 2016학년도 수능도 작년처럼 쉬운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영어와 수학 B형의 만점자 비율이 각각 3.37%, 4.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수능 난이도와

■ 수능 6월 모의평가 영역별 만점자 비율

영역	2015학년도 수능(%)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B형	A형	B형
국어	1.37	0.09	1.91	4.15
	2.54	4.30	1.55	0.98
수학	3.37	4.83		

관련해 “올해도 작년과 같은 출제기조를 이어간다”고 일찌감치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만점자가 많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주장이다.

대입전형에서 수능보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면접, 적성고사 등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모의평가처럼 수능이 출제되면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몰수몰락’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영역에서 수험생들이 실력이 아니라 실수로 한 문제를 틀려 등급이 내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번 모의평가처럼 수능이 출제되면 상위권 학생을 상대로 사실상 변별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우수 학생들의 상당수가 논술 전형에 집중하고 최상위권에서는 1~2문제 실수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신대 군사학과 교수진과 1학년생들이 학과 발전 워크숍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신대 제공〉

동신대 군사학과 개설 2년만에 '명문' 발돋움

군장학생 선발 29명 지원 1차 시험 2년 연속 전원 합격

동신대학교 군사학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육군 및 해병대 군장학생 선발 1차 시험에서 응시자 전원이 합격해 대학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동신대 군사학과(학과장 고재휘 교수)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육군 및 해병대 군장학생 1차 필기시험에 29명이 지원해 29명 전원이 합격, 전국 최고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동신대 군사학과는 출범 첫 해인 지난해에 지원 자격이 있는 재학생 87%가 군장학생으로 최종 합격하고 학사장교까지 포함할 경우 100% 장교선발시험에 합격한 바 있으며, 올해도 군 장학생 1차

시험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둬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군사학과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군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장교 임관이 보장되고 국가로부터 4년간 장학금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이 8대1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군사학과 여학생들도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여학생 ROTC에 5명이 지원해 전원 1차, 2차까지 통과하고 현재 3차 신원조회와 공무원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 대학 군사학과 합격률도 80%를 밑도는 상황에서 지방 대학이 이 같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신대 군사학과가 학과 개설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통해 규칙적인 훈련을 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과 군사전문가 초청 특강,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과장 고재휘 교수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스스로가 어려운 여건에 굴복하지 않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은 결과”라면서 “앞으로 남은 선발과정에 철저히 준비해 100% 장교 선발이라는 동신대 군사학과의 신화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6월 모의평가 영역별 등급 구분

등급	국어 A형		B형		수학 A형		B형		영어	
	표준점수	비율(%)	표준점수	비율(%)	표준점수	비율(%)	표준점수	비율(%)	표준점수	비율(%)
1	124	5.74	124	4.15	134	5.04	127	4.40	128	4.83
2	121	9.41	121	10.64	128	8.42	121	12.52	124	7.21
3	117	9.15	117	10.18	119	10.16	118	8.14	118	12.29
4	111	16.14	110	18.44	106	17.42	110	16.17	109	16.28
5	99	20.78	99	18.31	91	19.11	98	18.87	97	19.74
6	86	16.08	85	15.52	80	18.20	83	17.69	83	17.15
7	68	11.75	69	11.84	75	13.70	69	11.69	70	11.77
8	57	7.89	58	6.91	72	5.66	61	6.93	63	6.85
9	57미만	3.05	58미만	4.00	72미만	2.28	61미만	3.60	63미만	3.88
만점자	126	1.91%	124	4.15%	137	1.55%	131	0.98%	128	4.83%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합뉴스

전남도교육청, 감사원 자체감사 평가 전국 1위

2011년 이어 감사원장 표창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감사원이 주관한 '2014년도 자체감사 활동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위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양성기관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이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2차례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교원이 위기상황 시 학생을 지도하고 안전구조 능력을 키우는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평가는 감사 조직과 인력 운영, 감사 활동, 감사 성과, 사후 관리 등 4개 분야 24개 지표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장 확인 심사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 1년 간 기관별로 추진한 자체 감사활동의 모든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담당자 연찬회를 실시할 것을 비롯해 감사업무 편람 발간·배부, 학사분야 교육전문직 인력풀체 운영, 교수·건축사·회계사 등

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도민감사관)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감사품질향상 테스크포스팀 운영, 수감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감사 결과 공개, 재무감사, 모범사례 발굴·전파 등 모든 분야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새로운 감사 기법 개발과 예방감사를 더욱 강력하게 해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감사행정, 청렴한 전남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9월 2일 수능 마지막 모의평가... “EBS 교재서 70% 출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9월2일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도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사교육 경감을 위해 EBS 수능교재와 강의에서 70% 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이며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영어 영역 듣기평가 문항 수는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17문항이며 듣기평가 시간도 25분 이내로 실시한다. 국어·수학 영역에서는 A형 또는 B형을 수준별 시험을 실시하되 수험생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된다.

특히 9월 모의평가는 8월5일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고교나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이 받는 성적표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등급은 9등급으로 구분된다. 성적표는 9월24일까지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부터 교대·사범대생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의무화

앞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응급 상황에 필요한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양성기관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이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2차례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교원이 위기상황 시 학생을 지도하고 안전구조 능력을 키우는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작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교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육부가 이를 추진해왔다.

올해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의 목숨을 구하는 등 최근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은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의 최소 이수시간을 현행 1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줄였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의 안전교육을 강

화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체육, 보건 등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공에서 안전관련 과목을 신설하거나 안전교육 내용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위한 기본이수 과목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 추가되고 유치원 정교사(2급)와 초등학교 정교사(2급)의 기본이수 과목에 유아안전교육과 초등안전교육이 각각 포함됐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인, 전 동신대교수

진료문의 (062) 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 중앙초교

KT ● 한화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KT ● 중앙초교 ● 금남로

KT ● 한화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